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6 톨과 조선로동당 창건 68 톨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6 톨과 조선로동당 창건 68 톨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모임이 3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관계부문 일꾼들, 농근맹, 녀맹원들, 농업근로자들과 녀맹원들이 참가하였다.

##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

태권은 은호리에서 진행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안북도농근맹위원장 최광남, 은호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허정숙, 안주시농학협동농장 농장원 김명호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가 《마식령속도》 창조로 들끓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6 톨과 조선로동당 창건 68 톨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 정치적사건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당을

【평양 10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진된 평양체육관에서 전국대회체육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3일 개관식을 한 평양체육관에서는 각 도체육단부문 축구종목과 대중체육부문 배구, 탁구종목의 조별대결이 벌어졌다.

선수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밝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새롭게 변모된 훌륭한 체육관에서 개관후 첫 경기를 하게 된 환희를 안고 신심뜨들이 경기를 운영하였다.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대명강림과 청천강림사이의 남자농구경기는 체육전문가, 애호가들과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선수들이 먼거리던져넣기, 판공에 의한 톨밑성공 등으로 득점률을 높이며 기세를 올릴 때

## 농업근로자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승주고 움직이는 선군혁명의 전위대로 뚝뚝히 꾸리시고 당이 대중과의 혈연적연계를 강화하며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신것으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어 주셨다고 말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새차게 타올라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전환이 일어났으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새 역사가 펼쳐졌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제시하시고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셨으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농업근로자들을 위훈으로 불러일으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쳐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만대에 길이 빛나도록 하시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고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올해 농업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합으로써 우리 당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야 할것

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농업맹 조직들은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전개하여 농업근로자들도 모두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어 우리 당은 오늘을 이어나가는 주체의 혁명정당으로 위용맹치고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피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같이 간직되어있다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어온 영광스러운 행로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세기적번영과 기적을

창조해온 성스러운 언대기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당의 세심한 령도와 사랑속에 조선농민운동이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맡겨져 충실한 주체의 녀성운동으로, 우리 녀성들이 선군시대의 녀성혁명가로 자광명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천세만세 높이

##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녀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로성일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선교구역녀맹위원장 리애란, 대동구역 여성3동 초급녀맹위원장 리순희, 동대원구역 삼마1동 녀맹원 조영금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전체 녀성들은 우리당의 창건자, 건설자이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사투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정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당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모시고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의 중의 자주위업을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 새 화초공원이 꾸려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공원이 유원지가 많아야 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즐기면서 휴식을 충분히 할수 있으며 도시의 풍지도 들끓수 있습니다.》

통일거리에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게 될 화초공원이 새로 꾸려지고있다.

1만㎡의 부지에 건설되는 화초공원은 원형화대를 중심으로 걸음길 주변화원과 휴식대, 꽃상점 등이 이루어져있다.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수도의 풍치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랑랑구역안의 일꾼들과 주민들이 화초공원을 꾸리는 사업에 한사탕같이 떨쳐나섰다.

화장지휘부의 일꾼들은 화초공원을 훌륭히 건설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합쳐 조직적으로 짜고들고있다. 화초공원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기 위해 구역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 수천㎡의 막토를 처리하고 필요한 자재들을 마련하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많은 량의 부식토도 해결하였다.

또한 수종이 좋은 나무와 새 품종의 잔디를 정성껏 심고있다. 구역화초사업소에서는 화초공원에 어울릴 만드림, 만수국, 사철베고니아, 꽃야욕 등 10여종에 1만여포기나 되는 꽃들을 정성껏 기우고있으며 구역원림사업소에서도 화초공원에 옮겨심을 꽃밭물들을 잘 관리

리하고있다. 랑랑구역농촌건설대장 연성남동무를 비롯한 건설자들은 화단의 돌가공에서 제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풀어나가며 화초공원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김순옥동무를 비롯한 랑랑구역인민위원회 애매단위 일꾼들과 구역안의 주민들은 화초공원건설에 적극 떨쳐나 뛴을 해주고있으며 건설자들에게 화초공원을 꾸리는 사업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다.

지금 남조선사회 각계가 피뢰들의 이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확성음을 두고 《남북선언들에 대한 공식평가》, 《남북관계에서 악재로 작용할것이다》 등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경향》의 《개복정책》 5년이후 남북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리명배당국의 5년을 되풀이하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모처럼 마련되던 남북대화과 정세

##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웅변모임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8 톨을 축하하며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웅변모임이 3일 중앙로동자대회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현상주 직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직맹일꾼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평양맹주공장 직맹이동해설강사 원정란, 인민문화공진 직맹원 전혜영 등은 웅변 《어머니 우리 당을 생각할 때면》, 《10월 8일》, 《위대한 헌신의 밤》에서 우리 당을 찬양하고 강위력한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없이 배색을 떨치는 불멸의 혁명정당,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진정한 어머니당을 건설하신 위대한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같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와우도구역출판물모금소 직맹초급단체부위원장 리숙연은 웅변 《선군13경》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헌신 의 고귀한 주체적정신을 그 불꽃속에서 조국명예에 맡겨져 생겨나는 사회주의선경들을 위하여 감동깊게 이야기하였다.

《철혈애사파비다》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녀성과 로고의 결정적이고 우리 당의 은성속에 펼쳐진 선경이라고 하면서 그는 《마식령속도》 창조로 들끓는 조국명예는 새로운 선경들로 더욱 아름다워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의학과학원 중앙연구소 직맹원장 리명삼은 웅변 《조선의 입심단결》에서 수령과 인민, 최고시령관과 전사들사이에서 혈연적으로 맺어진 입심단결은 핵폭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큰 힘이며 주체적정신은 그 불꽃속에서 조국명예에 맡겨져 생겨나는 사회주의선경들을 위하여 감동깊게 이야기하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뜨 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전국도대항체육경기

평양체육관에서 전국도대항체육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농구경기에서는 대령리 선수들을 고루해주었다.

남자농구경기에서 참가한 황해남도팀과 함경남도팀 선수들은 대중체육활동을 통하여 경이에 넘쳐있는 높은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이들은 전문선수들 못지않게 다양한 체형과 맵한 강라, 살짜공을 잘 결합하여 응원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실력을 높이는 평안북도팀과 황해남도팀, 남포시팀과 황해남도팀, 강원도팀과 량강도팀, 평안남도팀과 자강도팀사이의 탁구경기는 관중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관람자들은 맛있는 특점장면들이 펼쳐질 때마다 환호를 올

##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탁구경기에서는 황해남도팀이 2:0으로, 남포시팀이 2:1로, 강원도팀이 2:1로, 평안남도팀이 2:0으로 상대팀들을 이겼다.

경기들은 계속된다.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 새 화초공원이 꾸려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공원이 유원지가 많아야 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즐기면서 휴식을 충분히 할수 있으며 도시의 풍지도 들끓수 있습니다.》

통일거리에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게 될 화초공원이 새로 꾸려지고있다.

1만㎡의 부지에 건설되는 화초공원은 원형화대를 중심으로 걸음길 주변화원과 휴식대, 꽃상점 등이 이루어져있다.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수도의 풍치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랑랑구역안의 일꾼들과 주민들이 화초공원을 꾸리는 사업에 한사탕같이 떨쳐나섰다.

화장지휘부의 일꾼들은 화초공원을 훌륭히 건설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합쳐 조직적으로 짜고들고있다.

화초공원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기 위해 구역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 수천㎡의 막토를 처리하고 필요한 자재들을 마련하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많은 량의 부식토도 해결하였다.

또한 수종이 좋은 나무와 새 품종의 잔디를 정성껏 심고있다. 구역화초사업소에서는 화초공원에 어울릴 만드림, 만수국, 사철베고니아, 꽃야욕 등 10여종에 1만여포기나 되는 꽃들을 정성껏 기우고있으며 구역원림사업소에서도 화초공원에 옮겨심을 꽃밭물들을 잘 관리

리하고있다. 랑랑구역농촌건설대장 연성남동무를 비롯한 건설자들은 화단의 돌가공에서 제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풀어나가며 화초공원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김순옥동무를 비롯한 랑랑구역인민위원회 애매단위 일꾼들과 구역안의 주민들은 화초공원건설에 적극 떨쳐나 뛴을 해주고있으며 건설자들에게 화초공원을 꾸리는 사업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다.

지금 남조선사회 각계가 피뢰들의 이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확성음을 두고 《남북선언들에 대한 공식평가》, 《남북관계에서 악재로 작용할것이다》 등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경향》의 《개복정책》 5년이후 남북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리명배당국의 5년을 되풀이하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모처럼 마련되던 남북대화과 정세

##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웅변모임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8 톨을 축하하며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웅변모임이 3일 중앙로동자대회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현상주 직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직맹일꾼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평양맹주공장 직맹이동해설강사 원정란, 인민문화공진 직맹원 전혜영 등은 웅변 《어머니 우리 당을 생각할 때면》, 《10월 8일》, 《위대한 헌신의 밤》에서 우리 당을 찬양하고 강위력한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없이 배색을 떨치는 불멸의 혁명정당,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진정한 어머니당을 건설하신 위대한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같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와우도구역출판물모금소 직맹초급단체부위원장 리숙연은 웅변 《선군13경》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헌신 의 고귀한 주체적정신을 그 불꽃속에서 조국명예에 맡겨져 생겨나는 사회주의선경들을 위하여 감동깊게 이야기하였다.

《철혈애사파비다》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녀성과 로고의 결정적이고 우리 당의 은성속에 펼쳐진 선경이라고 하면서 그는 《마식령속도》 창조로 들끓는 조국명예는 새로운 선경들로 더욱 아름다워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의학과학원 중앙연구소 직맹원장 리명삼은 웅변 《조선의 입심단결》에서 수령과 인민, 최고시령관과 전사들사이에서 혈연적으로 맺어진 입심단결은 핵폭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큰 힘이며 주체적정신은 그 불꽃속에서 조국명예에 맡겨져 생겨나는 사회주의선경들을 위하여 감동깊게 이야기하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뜨 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일성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3일 황금 아이 두언소장을 단장하셨다는 헬날의교전락연구소대표단, 개리 루이이트총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AP통신사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시대와 인류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셨으며 세계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상을 우리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웅출몰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손님들은 훈장보존실들, 울음홀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까지 현치지도

와 외국방문의 경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복에 글을 남겼다.

헬날의교전락연구소대표단장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금수산태양궁전을 둘러보며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웅출몰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손님들은 훈장보존실들, 울음홀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까지 현치지도

## 극악한 체제대결야망을 추구하는자들은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피뢰패당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것을 심의, 확정하는 높음을 버렸다.

피뢰패당은 이를 통하여 우리와의 체제대결기조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피뢰들은 그 무슨 《계획》이라는데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문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갈데 대한 문제 등 10. 4선언에 명기되고 북과 남이 리행하기로 합의한 문제들을 완전히 폐기해버렸다.

또한 북남사이의 현안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것으로 되어있던 이전 《정전》의 제약을 삭제하고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을 통해 《북평화를 유도》한다는것을 조야박았으며 그 무슨 《신뢰》를 운운하면서 대결과파멸을 내는 《중립추진과제》라는것을 멀거하였다.

총적으로 피뢰패당이 확정하였다고 하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것은 심의, 확정하는 높음을 버렸다.

피뢰들은 그 무슨 《계획》이라는데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문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갈데 대한 문제 등 10. 4선언에 명기되고 북과 남이 리행하기로 합의한 문제들을 완전히 폐기해버렸다.

또한 북남사이의 현안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것으로 되어있던 이전 《정전》의 제약을 삭제하고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을 통해 《북평화를 유도》한다는것을 조야박았으며 그 무슨 《신뢰》를 운운하면서 대결과파멸을 내는 《중립추진과제》라는것을 멀거하였다.

## 우리 나라 팀 2013년 아시아 16살미만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결승경기 진출

중국팀을 3:1로 라승

2013년 아시아 16살미만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우리 나라 팀과 중국팀의 준결승경기가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되었다.

희망과 재능을 꽃피워준 조국에 훌륭한 성과를 보인다고

경기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팀의 진출적의도를 잘 살리면서 높은 집단력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였다.

전반전 35분과 41분경 센터어 득점한데 이어 후반전 38분경

페릭식이 3일 주조 로씨야연방 대사관에서 있었다.

여기에서는 순위가 발표되고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교와 학생들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이러한 민중공동의 통일강령을 전면 부정하고 그 리행을 외면하면서 《남북

판개발전》을 운운하는것은 언어도단이며 민심과 여론에 대한 파멸적인 거만행위이다.

대구가 《안보》의 미명하에 외세와 야합하여 군사적대결을 추구하면서 《평화》에 대해 떠들고 《변화로의 유도》나 뉘나 하며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부정하면서 《신뢰》와 《협력》에 대해 일문을 울리는것이아말로 온 거베와 내외여론에 대한 참할수 없는 우용이고 모독이며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다.

지금 남조선사회 각계가 피뢰들의 이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확성음을 두고 《남북선언들에 대한 공식평가》, 《남북관계에서 악재로 작용할것이다》 등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경향》의 《개복정책》 5년이후 남북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리명배당국의 5년을 되풀이하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모처럼 마련되던 남북대화과 정세

##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웅변모임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8 톨을 축하하며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웅변모임이 3일 중앙로동자대회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현상주 직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직맹일꾼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평양맹주공장 직맹이동해설강사 원정란, 인민문화공진 직맹원 전혜영 등은 웅변 《어머니 우리 당을 생각할 때면》, 《10월 8일》, 《위대한 헌신의 밤》에서 우리 당을 찬양하고 강위력한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없이 배색을 떨치는 불멸의 혁명정당,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진정한 어머니당을 건설하신 위대한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같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와우도구역출판물모금소 직맹초급단체부위원장 리숙연은 웅변 《선군13경》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헌신 의 고귀한 주체적정신을 그 불꽃속에서 조국명예에 맡겨져 생겨나는 사회주의선경들을 위하여 감동깊게 이야기하였다.

《철혈애사파비다》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녀성과 로고의 결정적이고 우리 당의 은성속에 펼쳐진 선경이라고 하면서 그는 《마식령속도》 창조로 들끓는 조국명예는 새로운 선경들로 더욱 아름다워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의학과학원 중앙연구소 직맹원장 리명삼은 웅변 《조선의 입심단결》에서 수령과 인민, 최고시령관과 전사들사이에서 혈연적으로 맺어진 입심단결은 핵폭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큰 힘이며 주체적정신은 그 불꽃속에서 조국명예에 맡겨져 생겨나는 사회주의선경들을 위하여 감동깊게 이야기하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뜨 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구바에국가자 석방을 위한 국제적련대성

구바에국가자 석방을 위한 국제적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3일 조선구바친선 모란봉제1중학교에서 련대성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구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구바에국가자 석방을 위한 국제적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3일 조선구바친선 모란봉제1중학교에서 련대성모임이 진행되었다.

## 석방을 위한 국제적련대성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미국이 반구바에로단대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는 구바에국가자들에게 《간첩》이라는 혐의를 들먹여 체포하고 징역형을 인도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국은 그 어떤 경제보충정책도 정의의 투쟁에 떨쳐나선 구바인민의 혁명적의지를 꺾을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 캄보자대사관 성원들 백석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손 하이 캄보자왕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3일 신천군 조선캄보자친선 백석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치지도사적비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당면한 농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을 도와 버거움을

하였다. 일함에 손님들은 이쪽 농업근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특명전권대사는 농장이 올해 농업생산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대사관성원들은 농장에 지원물자를 넘겨주었다.

【조선중앙통신】

구바에국가자 석방을 위한 국제적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3일 조선구바친선 모란봉제1중학교에서 련대성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미국이 반구바에로단대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는 구바에국가자들에게 《간첩》이라는 혐의를 들먹여 체포하고 징역형을 인도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치지도사적비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당면한 농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을 도와 버거움을



